

[러시아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7월 4주차]

우즈베키스탄, 중국과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 합의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의 중신그룹(CITIC Group) 등과 ‘안전한 도시(Safe City)’ 프로젝트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중신그룹이 3억 달러(약 3,526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에는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이미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는 중국 전자기업 화웨이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감시 능력이 향상되면 우즈베키스탄은 법 집행 능력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사생활 침해와 중국이 감시 기술 분야 등에서 미칠 정치적·전략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3억 달러 투자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가 6월 21일 중국 국영투자회사인 중신그룹(CITIC Group)과 허난 코스타(Henan Costar)와 우즈베키스탄의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감시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속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전자기업 화웨이가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첨단기술과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신그룹이 3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번 투자는 샤브카트 미르지야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한 10억 달러(약 1조 1,7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정 일부이다. 약속대로 2020년 말까지 투자금 집행이 끝나면,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중국 석유천연기총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2012년 20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를 투자한 가스 프로젝트에 이어 중국 제2대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프로젝트로 기록된다. 수도 타슈켄트는 화웨이 및 중신국안정보산업(CITIC Guan Information Technology) 등과 ‘안전한 도시’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에는 도시 감시 시스템 외에도 전자정부, IT, 원격의료 개발 등도 포함된다. 화웨이와 정보기술통신개발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두 국영 통신기업이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화웨이는 이미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하라(Bukhara) 지역과 협력해 얼굴인식 기술을 시험한 경험이 있다. 화웨이는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도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해, 1,800대의 감시 카메라와 195대의 경찰국, 7,600명의 경찰관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웃국가인 타지키스탄에서도 2013년 합의에 따라 곧 얼굴인식 기술을 소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감시와 비디오 모니터링 기술이 향상되면 법집행 능력이 개선되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여부도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찰의 책임감은 커지고, 시민들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감시 분야와 그와 인접한 통신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가 미치는 정치적·전략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출처

· The Diplomat, China Dominates Digital Infrastructure in Uzbekistan, 2019.06.28.